

# 나주시 출생아 수 3년 연속 늘었다

임신·출산·양육 아우르는  
촘촘한 저출생 대응 정책 성과  
전남 최대 공공산후조리원 재개원

나주시가 임신부터 출산, 양육까지 전 생애를 아우르는 촘촘한 지원 정책을 바탕으로 3년 연속 출생아 수 증가라는 성과를 거두며 저출생 시대에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도시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나주시는 2022년 680명이었던 출생아 수가 2023년 735명, 2024년 788명으로 증가한 데 이어 2025년에도 791명을 기록하며 3년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고 밝혔다.

전남도 22개 시군 가운데 3년 연속 출생아 수가 증가한 지역은 6곳에 불과하며 이 중 나주시는 도내 5개 시 단위 가운데 유일하게 3년 연속 출생아 수 증가 성과를 기록했다.

출생아 수 증가 함께 임신부 수도 늘고 있으며 2025년 나주시에 임신부 수는 843명으로 지난 해와 비교하면 63명이 증가해 향후 출생 증가 흐름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합계출산율도 2023년 기준 나주시 합계출산율은 1.09명으로 전국 평균을 웃돌며 도내 5개 시 단위 중 1위를 기록했으며 2024년에도 1.16명으로 1위를 유지하면서 전국 평균 0.72명을 상회했다.

시는 소득 기준과 횟수 제한을 폐지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을 비롯해 결혼 여부와 자녀 유무와 관계없이 20세부터 49세까지 남녀를 대상으로 하는 임신 사전건강관리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임신부의 가사 부담을 덜기 위한 임신부 가사돌



오는 2월 재개원하는 나주 공공산후조리원 신생아실. 〈나주시 제공〉

봄 서비스도 호응을 얻고 있다.

임신 21주부터 출산 전까지 가정에 가사돌봄 관리사를 파견해 회당 4시간씩 총 4회 청소와 정리 수납 등을 지원한다.

나주시는 2022년 11월부터 출산장려금 지급 조건이었던 6개월 의무 거주 요건을 폐지했으며 주소지 등록 후 하루만 거주해도 출산장려금을 지급하고 있다.

이와 함께 2024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는 전남도 지원금 10만원과 나주시 출생기본소득 10만원을 더해 매월 20만원을 18년간 지급하는 출생기본소득 정책을 시행 중이다.

출산 인프라도 강화에 나서 오는 2월 빛기람종 합병원에 위치한 전남공공산후조리원 4호점이 기능보강공사를 마치고 재개원을 앞두고 있다.

전남 최대 규모로 운영될 나주 공공산후조리원은 산모실을 18실로 확대하고 힐링 프로그램과

임산부 전용 승강기를 신설해 보다 안전하고 편리한 환경을 제공할 예정이다.

또 산모들에게 호응이 높았던 경혈마사지실, 요가실, 족욕실, 모유수유실 등을 새롭게 조성해 단순한 조리원을 넘어 산모 회복과 휴식을 지원하는 '작은 힐링 센터' 공간으로 기능을 강화한다.

나주시는 앞으로도 아이를 낳고 키우는 선택이 개인의 부담이 아닌 지역사회가 함께 책임지는 희망이 될 수 있도록 저출생 대응 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윤병태 나주시장은 "아이를 낳고 키우는 일은 부담이 아니라 희망과 행복이 되는 도시로 나주가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다"며 "출생과 양육 전 과정에 행정이 함께하는 정책과 오는 2월 개원을 앞둔 공공산후조리원도 더 넓고 편리하게 만들어 건강한 육아 환경 조성에 보탬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나주시는 앞으로도 아이를 낳고 키우는 선택이 개인의 부담이 아닌 지역사회가 함께 책임지는 희망이 될 수 있도록 저출생 대응 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나주=김민수 기자 kms@kwangju.co.kr〉

## 화순서 키운 한국춘란 500촉 중국 수출길 올랐다

### 국내 최초 합법적 춘란 수출 사례

화순에서 키운 한국춘란 500촉이 최근 중국 수출길에 올랐다.

이번 물량은 시험 수출의 의미를 띠며, 중국 푸젠성 장주시 낭정현 지역 현지 유통업체로 향한다. 군은 추가 수출도 계획 중이다.

군에 따르면 이번 수출은 경역·환경·통관 등 모든 법적 요건을 충족한 전국 최초의 합법적 한국춘란 수출 사례다. 그동안 비공식 거래에 떠들던 난 유통 구조를 산업화·수출 중심 구조로 전환하는 중요한 정책적 전환점으로 평가된다.

앞서 군은 중국 수출 성사를 위해 화순난농업회사법인을 중심으로 전남도, 농림축산검역본부, 영산강유역환경청 등 관계 기관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해 왔다.

2024년 4월 푸젠성과 난산업 교류 협약을 체결하고, 화순 난 명품 박람회에 푸젠성 낭정현난화협회 회원들을 초청해 한국 춘란의 우수성을 홍보했다. 아울러 현지 경역 기준·유통 구조에 대한 지속적이고 긴밀한 협의를 통해 일회성 수출이 아닌



구복규 화순군수가 지난 18일 열린 한국 춘란 최초 수출 기념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화순군 제공〉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수출 구조를 마련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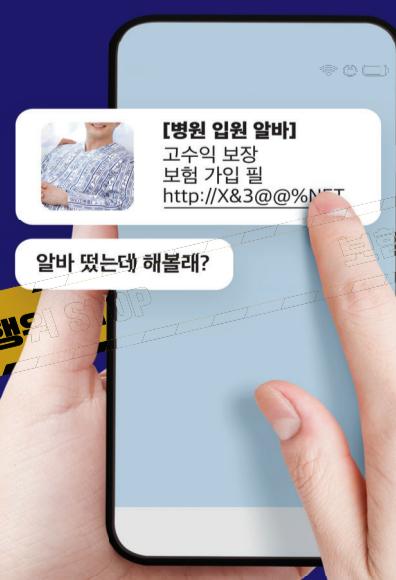
군은 한국 춘란을 중심으로 난 산업을 고부가가치 수출 산업으로 육성하고, 재배·유통·수출로 이

어지는 산업 구조를 더욱 체계화해 농가 소득 증대와 지속 가능한 난 산업 기반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화순=조성수 기자 css@kwangju.co.kr〉

## 보험사기 알선·유인·광고 행위는 범죄입니다

24년 8월 14일부터

보험사기 행위를 알선·유인·권유 또는 광고하는 행위 시  
최고 징역 10년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



한국인의 보호보장  
전국민의 경제부담

## 보험사기 알선·유인·광고 행위 신고하세요

### 신고 방법



금용감독원 콜센터  
국번없이 1332 ▶ 4번 ▶ 4번



금용감독원 홈페이지  
www.fss.or.kr ▶ 보험사기 신고

각 보험회사  
대표번호

각 보험회사 홈페이지  
보험범죄신고센터

알선이란?

보험사기 행위를 실행하려는 자 사이에서 이를 중개하거나 편의를 도모하는 행위

유인이란?

기망 또는 유혹을 수단으로 보험사기 행위에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행위



경찰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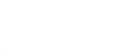
금용감독원  
National Consumer Service



h-well  
국민건강보험



생명보험협회  
Korea Life Insurance Association



손해보험협회  
Korean General Insurance Association



IGRAA 보험GA협회  
Insurance General Agents Association of Korea

## "장성 기업하기 좋다"… 전국 기업들 '엄지 척'

대한상의 6850개 기업 체감도 조사

### 나노산단 조성 등 투자 유치 성과

장성군이 국내에서 가장 기업하기 좋은 지역에 이름을 올렸다.

장성군에 따르면 최근 대한상공회의소가 228개 기초지방자치단체에 있는 6850개 기업을 대상으로 '기업환경 체감도 조사'에서 장성군은 창업·입지 부문 '톱(top) 10'에 낙관히 이름을 올렸다. 2개 분야에 동시 선정된 지역은 전국에서 장성군과 안양시, 안산시, 남해군 단 4곳뿐이다.



장성나노산업단지 조감도.

업 특별지원지역'으로 지정돼 조세 감면과 금융 지원, 중앙부처 지원사업 우선 선정 등 혜택을 받고 있다.

이번 조사와 관련 이민창 한국규제학회 회장은 "규제가 완화되어 있고, 부지 활용 여력이 높은 지방 기초자치단체에서 공장 설립의 선호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분석했다.

김한종 장성군수는 "첨단산업 중심도시로 체질 개선을 해온 것이 기업의 좋은 평가로 이어지게 돼 매우 뜻깊다"며 "기업 친화적인 도시, 일하며 살기 좋은 장성을 만들기 위해 더욱 행정력을 집중하겠다"라고 말했다. 〈장성=김용호 기자 yongho@

## 함평군 태양광 발전 수익금 68개 마을에 환원

### 매년 7000만 원 수익금 배분

가 있다.

군은 사업 시행으로 주민 편의를 높이는 한편, 에너지전환 정책에 대한 주민 인식과 참여율도 함께 높일 계획이다.

군은 지역에너지신산업과 더불어 가정용 태양광 보급 확대를 위해 주택 태양광 지원사업 등에 참여한 마을에 환원하고 있다.

지역에너지신산업은 마을 경로당·공용 창고 등에 태양광 발전 설비를 설치해 생산된 전기를 판매하고 수익금을 마을에 배분하는 사업이다.

앞서 군은 2021년 공모사업으로 시행한 이 사업이 안정화 단계에 접어들며 2023년부터 수익이 발생했고, 2024년 1월부터 사업에 참여한 68개 마을에 매년 약 7천만 원의 수익금을 배분하고 있다.

수익금 환원은 태양광 발전사업의 성과가 지역에 재투자되는 선순환 구조를 정착시키는 데 의미

있다.

〈함평=한수영 기자 hsy@kwangju.co.kr〉

## 담양군, 새해맞이 모바일 걷기 '워크온' 운영

### 26일~2월 8일 걷기 챌린지 진행

담양군이 새해 맞아 오는 26일부터 2월 8일까지 온라인 걷기 챌린지 '새해엔 건강하단 말이야'를 운영한다.

이번 챌린지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워크온(Walk ON)'을 활용한 온라인 참여 방식으로 진행된다.

'워크온(Walk ON)'은 이용자가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자유롭게 걷기에 참여할 수 있는 모바일 걷기 애플리케이션이다.

참여 방법은 스마트폰 플레이스토어 또는 앱스

토어에서 '워크온' 앱(APP)을 설치하고 회원가입한 뒤, 전체 커뮤니티에서 '담양군'을 검색해 '담양군 걷기 공식 커뮤니티'를 선택하면 된다.

참여 기간 총 9만 6000보를 달성한 참가자 중 선착순 500명에게 상품을 증정한다. 하루 최대 걸음 수는 8000보로 제한한다.

군은 지난 2021년 '워크온 커뮤니티'를 개설해 군민의 일상 속 걷기 실천을 꾸준히 지원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다양한 건강 주제별 걷기 챌린지를 총 5회 운영했으며 6938명의 군민이 참여하는 등 호응을 얻었다.

〈담양=한동훈 기자 hdh@kwangju.co.kr〉